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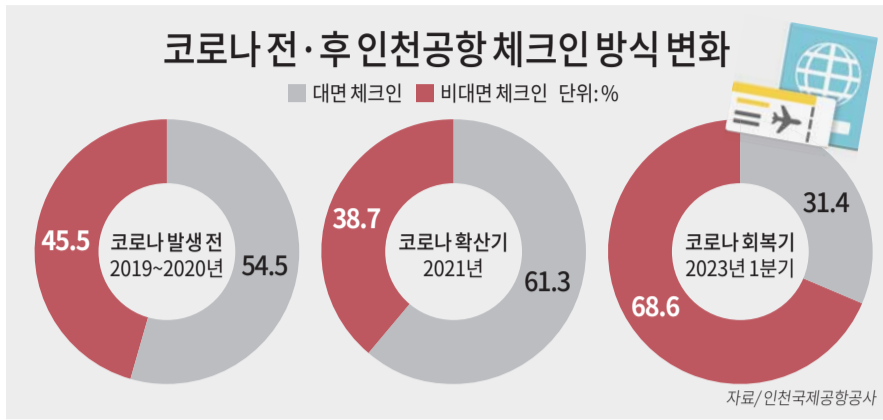
# 인천공항, 셀프 체크인·백드랍 '비대면 서비스' 23.1% ↑

## 코로나19가 바꾼 공항 풍경

출국 목적 '관광·휴양' 다시 1위  
가족·친지와 동반출국 비율 높아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 10명 중 7명은 '관광·휴양'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 여객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이용객 다수는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국객과 환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공항 이용객 행동특성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의 출국 목적, 여행 유형, 동반자 유형 등의 여행특성과 공항내 체크인·면세점 등의 시설·서비스



이용행태를 담았다.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인천공항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를 통한 대면 발권방식이 아닌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23.1%p 증가한 68.6%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사회 전반에 급격히 확산된 비대면 서비스가 공항 수속에서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국 목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

인 2021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친지방문'(33.7%)을 제치고,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관광/휴양'(71.4%)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출국 동반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대체를 차지하던 '나홀로'출국(67.4%)을 제치고 다시 '가족/친지'와의 동반 출국 비율(4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여행의 선호도가 더욱 강화된 것도 특징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9.3%p 상승한 84.3%의 항공여객이 개별여행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면세점 및 음식점 등 공항시설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역 시설 이용률은 26.7%에서 53.6%로, 출국장지역은 53.0%에서 63.2%로 증가하는 등 공항이용 행태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된

다.

공사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공항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수요회복기 공항운영 정상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면세점 및 식음·서비스 매장 운영을 확대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여객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공항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세계적으로 완화되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635명의 인천공항 이용 여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7%에 표본오차는 ±2.7%p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무협, 식품·뷰티 등 계약추진 148억 성과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 참가  
정만기 부회장  
"양측 소비재 교역 확대 가능"



한국무역협회(KITA)는 2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대만 상업총회와 공동으로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열린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에서 상담액 3282만 달러(약 433억 원), 계약 추진액 1123만달러(148억 원), 현장 계약 체결액 1만8000달러(2300만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무협과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대만 상업총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상담회에는 한국 수출입 기업 27개사, 대만 수출입 기업 95개사 등 총 122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20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회는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상담회 참석 한국 기업인들은 무협이 현지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면 상담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만 진출이 확대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A사 대표는 "대만 시장의 높은 가능성을 보고 상담회 참여를 결정했으나, 현지 시장과 산업 정보가 부족했다"며 사업 참가 이전에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데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자녀 조인에 따라 애완동물용 고데기를 만들었는데 대만에서 반응이 매우

좋아 놀랐다"며 "대만은 가까운 시장인 만큼 바이어를 잘 관리한다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식품 서비스 업체 C사 대표는 "진성 바이어 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며 "다만, 짧은 출장 일정으로 하루에 많은 바이어를 만나다 보니 상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상담회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제안했다. 주방용품 제조업체 D사 대표는 "대기업들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며 "전문 무역상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한국의 종교·역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이지만 한국과 대만 간 소비재 교역 비중은 3.1%에 불과하다"며 "한-대만 양측 소비자 소득이나 소비 성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양측의 소비재 교역 확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고용부, 여성고용 '미충족' 43개사 공개

여성고용 비중 낮고 개선의지 부족

여성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 43개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43개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 연속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들 명단이다.

해당 명단에는 직원 1000인 이상 12개사와 1000인 미만 31개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계열사 SK네트웍스의 경우 전체근로자 734명

중 여성근로자 수가 50명(6.81%)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여성고용기준율(12.55%) 한참 못미친다. 이 기업의 여성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또 단양관광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지방공사도 43개사에 포함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시행 원년 30.77%와 10.22%에 머물다 2022년 기준 각각 38.05%와 21.75%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가루쌀빵·맥주·과자 등 '쌀가공식품' 만난다

최신 제품·시장 동향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은 우수 쌀가공식품기업과 제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3년 차를 맞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 가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발굴·육성하여 케이·푸드(K-Food) 시장의 혁신적인 확대를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총 52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 2022년에 선정된 쌀가공식품 상위 10개 제품을 비롯한 최신 제품과 시장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쌀가공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동네빵집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개의 가루쌀빵과 함께 가루쌀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또한 가루쌀 제분 시연, 가루쌀빵 쿠키쇼, 가루쌀 과자 경품 추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 "외래 흰개미, 최소 5년 전 유입 추정"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이미 5년 전부터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 흰개미의 개체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정부합동역학조사단은 24일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cryptotermes domesticus)"라며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물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2~23일 해당 세대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세대에서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흰개미 등 생식개체 총 159마리를 박멸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경찰, '박지원·서훈 채용비리' 자택·국정원 압색 /사진 뉴시스
-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 ▲ 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환영... "노동권 보장 기대" /사진 뉴시스
- ▲ 의대정원 문제로 번진 'PA간호사' 논란... "의사 수 늘려야"



- ▲ 서울경찰청 경무관 숨진채 발견... 극단선택 추정
- ▲ 고객 4천여명 정보 새나간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200만원